

# 유아용 도서, 이대로 좋은가

## 인지발달에 역행하는 저질도서 많다

曹大鉉

아동문학가

### 높아진 관심

최근 유아용 도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웬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서점에서는 기존의 아동도서 코너에 덧붙여 유아용 도서를 전시하는 진열대를 따로 설치하고 있고, 서점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도 미취학 어린이의 손을 이끌고 유아용 그림책을 사러 오는 주부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출판계의 반응도 민감해서, 불과 5,6년 전만 해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자체 제작 유아용 그림책(국내물)을 무더기로 내놓는 출판사가 생기는가 하면, 외국것의 복사판 일색이던 유아용 도서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그림,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유아용 도서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활발해진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근래에 이르러 핵가족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녀의 수가 적어졌고, 거기다 조기교육 바람이 일어나면서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된 주부들이 일찍부터 자녀의 독서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도서 출판이 저조한 가운데 아동도서, 그 중에서도 유아용 그림책이 근년에 소리없이 활기를 띠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전체 아동서의 21.8% 차지

그러면 이와같이 독자나 출판계가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용 도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단계에까지 발전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아용 도서의 개념과 출판현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논거 전개상 필요한 순서일 것 같다.

유아용 도서란 글자 그대로 국민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발달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을 말한다. 따라서 글자보다 그림이 많고, 그림은 전면 원색으로 되어 있으며, 글자는 알아보기 쉽도록 굵은 활자를 쓴 것이 편집상의 특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아용 도서는 총 2,092종쯤 되는데, 전체 아동도서 9,597종 중 21.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교보문고 88년도판 「도서목록」 분석)

그 내용은 자동차·배·비행기 등 탈것의 종류와 교통질서를 가르쳐주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동식물의 이름과 꽃·과일·채소 등 생활주변의 자연물 또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

종 용품의 종류와 그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생활예절 또는 간단한 숫자개념이나 글자를 익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밖에 공공 봉사기관의 종류와 거기서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 등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국내의 명작동화를 그림으로 엮은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도서의 약 80%는 외국것의 복사판이거나 재편집물이다. 유아용 도서가 어린이의 인지발달 과정에서 최초로 접하는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외국물 편중화 현상은 단순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또 어느 출판사가 개발해 낸 아이디어를 다른 출판사가 도용했을 때, 냉정하게 그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유아용 도서는 그 형태나 의장도 다양해서, 어떤 책은 국배판이 넘는 대형 사이드도 있고, 작은 것은 4·6판의 반절쯤 되는 책도 있다. 또한 책에다 간단한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7음계의 멜로디를 익히도록 만든 것도 있고, 근래에는 책 내용을 입체녹음으로 극화해서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끼워팔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용 도서는 취학 전 어린이가 인지발달 과정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인쇄물이요, 그것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뜨게 되는 동시에, 초보적인 지능과 상상력 창의력 가치판단력 등이 이런 視知覺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 복사판이 4배나 많아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용 도서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 —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1개월여에 걸쳐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도서를 비교적 세밀히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양적 풍요에 비해서 질적 수준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 것의

복사판에 비해서 우리나라 출판사가 고유로 개발해 낸 책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앞에서 유아용 도서의 전체 종수를 밝힌 바 있지만, 그것을 다시 순수 국내제작물과 외국것의 복사판으로 나누어 보면 약 2 : 8의 비율이 된다. 즉 전체 유아물 2,092종 가운데 순수 국내제작물은 447종(21.4%) 밖에 안되고 나머지 1,645종(78.6%)은 모두 외국것의 복사판이거나 재편집물이었다. 그래서, 출판사 명목과 표지 디자인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 그림은 서로 중복되는 책이 너무나 많았다.

유아용 도서가 어린이의 인지발달 과정에서 최초로 접하는 인쇄물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해외물 편중화 현상은 단순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도서를 점검해 보면서 필자가 느낀 소감이었다. 우리는 흔히 국민학교 어린이나 중등학생들이 낙서삼아 로봇의 모습을 그리거나(남학생의 경우)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길며 두다리가 쭉 뻗은 서양소녀의 모습을 그리는 예(여학생의 경우)를 많이 보거나, 이런 낙서행위가 결코 유용없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년기부터 이런 외국 그림을 보고 자라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콩쥐팍쥐는 몰라도 신데렐라의 이미지는 금방 머리에 떠올리는’ 視覺 문화의 서양 예측화 증상에 감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각문화의 서양화는 필연적으로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의 서양화 현상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인쇄 조잡하고 그림 허술해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쇄의 조잡성이다. 유아용 도서는 주 표현수단이 그림, 그것도 원색그림이기 때문에 인쇄의 양호도가 도서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도서는 대부분 외국그림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색의 명도 채도는 물론 가장 중요한 보색관계가 깨져버려, 전체적으로 색조가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밝아 시신경을 어지럽게 자극하는 것이 많다. 심한 경우는 빨강색이라고 설명까지 붙인 사과의 색깔이 칙칙한 주황색으로 찍힌 것이 있는가 하면, 색도의 포인트가 맞지 않아 2중 3중으로 찍힌 그림을 그대로 재본한 책도 있다.

이러한 인쇄의 조잡성은 취학 전 유아들에

게 잘못된 색채감각과 왜곡된 미적정서를 심어줌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자라 정규 미술교육을 받게 될 때 오히려 정상시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유해할 뿐이다.

세째, 국내 출판사에 의해 자체제작된 도서에서는 그림의 비전문성이 큰 문제다.

잘된 그림책일수록 색채가 부드럽고 생동감이 나지 않고 그림 자체가 무한한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법인데, 우리나라의 그림은 사물의 형태만 갖추어져 있을 뿐, 그 속에 꿈과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흠이다. 또한 잘된 그림일수록 구도가 단순소박하면서도 그 속에 강조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섬세한 선과 색채로 명확히 구분 처리되어, 설명이 따로 없어도 그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림책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면에까지 정성들인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대충 스케치만 하고, 그 위에 화려한 색칠을 하여 눈을 현혹하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따라서 각 페이지마다 화면구도가 대체로 산만하고 핵심주제가 없으며, 서로 연결되는 앞뒤 페이지의 그림끼리 상호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입은 옷이나 배경은 한국적인데 인물의 표정이나 이목구비의 형태, 또는 행동하는 선의 표현이나 색채의 분위기가 어딘지 서양사람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것도 요즘 유아용 도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물상의 오류다.

### 서투른 편집, 졸렬한 문장설명

네째로 편집기술, 특히 레이아웃의 미숙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그림, 같은 문안을 가지고도 그 배치와 활자체의 변화에 따라 지면에서 받는 인상이 사뭇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포스터나 광고지에서 익히 보는 바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을 주로 하는 유아용 도서야말로 레이아웃의 영향을 가장 크게 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글자보다 그림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이 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일정한 흐름과 줄거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용 도서야말로 고도의 숙련된 편집기술을 요한다.



요즘 서점가의 인기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아용 그림책이나 교육교재 가운데에는 무책임한 출판물이 적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도서는 비전문 편집인들에 의해 급조로 제작된 책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외국그림을 마구 가위질하여 지면 전체를 숨쉴틈 하나 없이 뿔뿔이 채운 것. 그리고, 무조건 굵은 활자를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먹 같은 고딕이나 태명조 활자로 문장 설명을 붙인 것. 또는 그림 위에 문장 설명을 겹쳐 찍어 글자 자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것. 이런 책일수록 앞뒤 페이지의 그림이 이야기로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그림 내용과 문장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이해에 혼란을 주는 예가 허다하다.

아마도 이런 책은 제작비 절감을 위해 원래 여러 페이지로 된 외국판 원본을 면수를 줄여 재구성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보거나, 이런 무책임한 편집형태는 근본적으로 출판사의 양식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섯째, 그림을 보조하는 문장설명의 어설픈 품이 또한 문제다.

유아용 그림책에서 글자에 의한 내용 설명은, 원칙적으로 그림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때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절제해서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판사의 도서제작 순서는 먼저 글로 된 원고를 만들고, 글 내용에 맞춰 그림이 뒤따라가는 逆順의 방법으로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문장설명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때로는 불필요한 설명까지 과잉친절을 보임으로써 도리어 독자의 상상력을 차단하는 책이 많다. 이것이 문자해독 이전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림위주도 아니고 글자위주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편집태도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문장의 세련도도 문제다. 짧고 간명하게 표현해도 되는 문장을 공연히 비비틀린 문장으로 서술해 도리어 이해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아에게 걸맞지 않게 성인투 내지 외국어 직역체의 문장을 쓴 책도 많다. 이것 역시 길지 않은 글이니까 전문가의 손을 빌지 않아도 된다는 몰인식 때문에 편집진에서 적당히 운문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인다.

#### ‘우리것’ 그림 삽화가 양성

이상에서 필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아용 도서의 내용상 문제점을 찾아보았거니와,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판인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을 초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적어도 아동도서, 그 가운데서도 유년기 아동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유아용 도서야말로 상업적 타산 이전에, 이책이 과연 내 아들·딸 그리고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겸허하게 헤아려보는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가 비판을 할 줄 모르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들이 좋고 나쁨을 가릴 줄 모르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정성들여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릴 때 책에서 받은 인상이 평생의 독서습관과 태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유년용 도서의 제작에는 보다 투철한 사명감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용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인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순수 국내물 제작에 모든 출판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2:8의 비율로 되어 있는 국내물과 복사물의 비

율을 최소한 5:5정도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그림을 담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장래 이땅의 주역이 될 유아들이 외래문화에 접하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고 그것을 체질화시키도록 출판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그와 같은 당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아동물 전문 삽화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몇 명 안되는 아동물 삽화가를 여러 출판사가 경쟁적으로 동원하거나, 경비절감만을 논사로 무명의 화공을 쓸 때 좋은 그림책은 나오기 어렵다.

그와 함께 인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부득이 외국그림을 써야 할 경우에는 원 필름을 들여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색도 분해나 인쇄시에는 반드시 색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질적으로 우수한 그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전문가 참여로 ‘생각하는 책’ 만들도록

세째, 도서의 기획과 편집과정에는 반드시 아동물 전문 삽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아동문학가를 참여시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에 제작으로 들어가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원고료 몇푼 나가는 것이 아가와 편집자가 적당히 운문을 한다든지, 아이들 보는 책이니까 적당히 가위질해 오려붙이는 식의 편집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만약 어느 출판사가 고유로 개발해 낸 도안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출판사가 도용했을 때에는 아무리 동업자끼리라고 냉정하게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출판사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독자에게 질높은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네째, 이것은 편집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유아용 도서도 단순히 사물의 모양이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단계에서 벗어나, 그 사물의 생성이나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편집방향이 한 단계 높아져야겠다. 예를 들어 ‘채소’하면 배추·무우·토마토 등의 생김새나 이름만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씨를 뿌려 싹이 트는 과정과 그것을 가꾸는 농부의 노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식생활에 어떻게 유용되는가를 체계있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 사고와

생명에 대한 신비, 노작에 대한 경외감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 그림책을 고르는 안목

다음은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유아용 도서는 그 성질상 부모, 특히 주부들의 손에 의해 골라지고 구입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대부분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은 채 마치 슈퍼마켓에서 과자봉지 골라 사듯 표지만 보고 적당히 골라잡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출판계에서 악서는 영원히 추방되지 않는다. 독자가 책을 고르는 안목이 높아지고 세심해질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수준높은 양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끼워 팔기에 대해서도 독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인쇄매체와 녹음매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두뇌의 인식작용이 다른 것이다. 인쇄매체가 반복작용에 의해서 여러가지를 사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녹음매체는 현장감을 살려 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一過性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책과 녹음 테이프를 함께 작동시켜 감상하게 되겠지만 그런 번거로운 독서행위를 과연 얼마나 되풀이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녹음 테이프가 독서라는 본질 행위에 도리어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린이가 녹음 테이프의 회전속도에 따라가느라고 정작 책을 보며 생각하고 느끼는 감상의 기회를 빼앗겨버리게 되므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출판문화가 앞선 나라에서도 언어학습이나 그밖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책에다 녹음 테이프까지 끼워 파는 일은 극히 드문 예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요즘 우리나라 유아용 도서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이프끼워 팔기는 값을 올리기 위한 과대포장의 인상을 지워버리기가 어렵다. 차라리 테이프 대신 책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비용으로 보다 질높은 도서를 개발해 내는 것이 출판의 正道를 가는 길이요, 독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